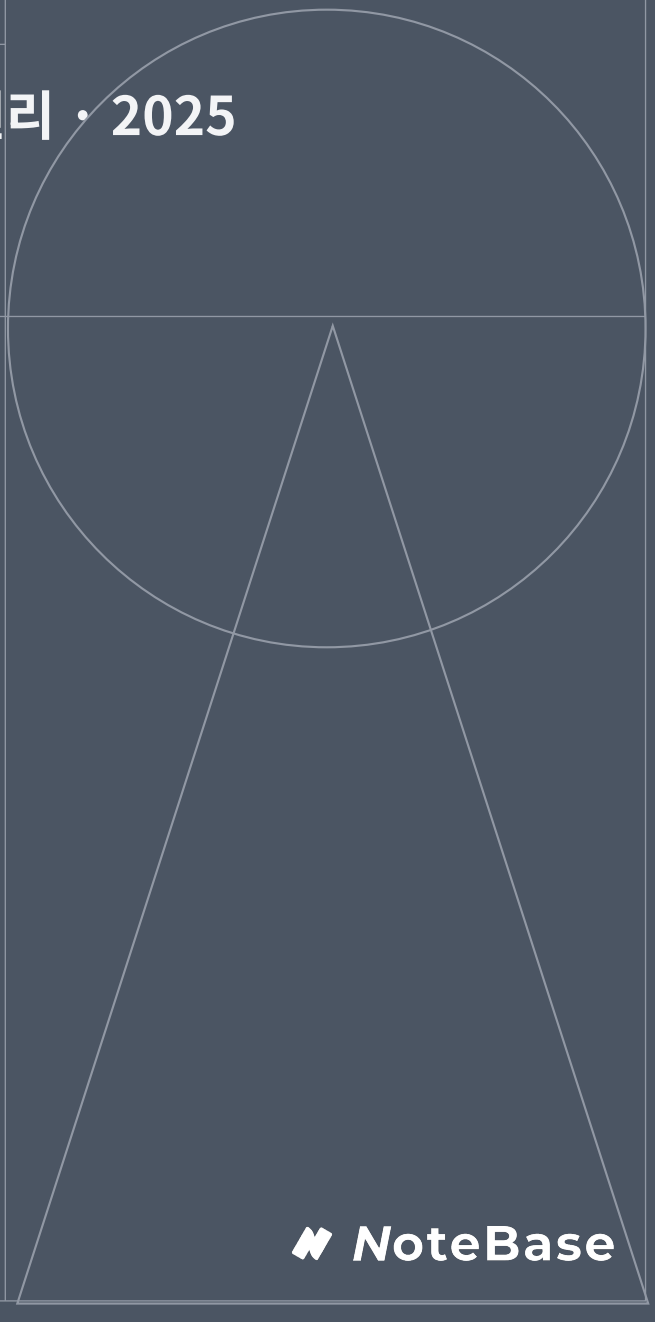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5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5

문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수행의무의 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②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③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④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재매입하는 약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재매입약정은 고객이 자산을 사용하고 그 효익을 얻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통제 획득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수익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한다. 자산의 이전은 **고객이 그 자산의 통제를 획득할 때** 이루어진다. 통제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에서 생기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면 그 시점에, 기간에 걸쳐 이행하면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② X: 고객이 자산의 통제를 획득하는지 판단할 때는 **재매입약정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판매기업이 자산을 다시 매입할 의무나 권리를 보유하면, 고객은 자산을 물리적으로 인도받더라도 그 사용을 지시하고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얻는 능력이 제한되므로 통제를 획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산을 인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③ O: 수행의무의 이행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경우와 한 시점에 이행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먼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이다. 이때 고객에게 자산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④ O: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완전한 이행을 향한 진행률을 측정하여 수익을 인식하므로,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없다면 진행률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다만 계약 초기 등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발생원가의 회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NoteBase

문 2. 충당부채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며, 현재 의무에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도 포함한다.

② 기업의 미래 행위(미래 사업행위)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과거 사건에서 생긴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③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④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미래 사업행위와 관련하여 존재하는'이 잘못된 표현이다.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에서 생겨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에 대해 다른 인식요건도 충족할 때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충당부채는 지급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과거 사건에 따른 현재 의무, 높은 자원 유출 가능성, 신뢰성 있는 금액 추정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식한다.

① O: 과거 사건의 결과로 생긴 현재 의무에는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가 모두 포함**된다. 법적 의무는 계약이나 법률 등에 따라 발생하고, 의제 의무는 기업의 확립된 관행·공표된 방침·구체적인 성명 등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하여 발생한다.

② X: 충당부채 인식의 대상은 과거 사건에서 생겨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무**이다. '미래 사업행위와 관련하여 존재하는'을 '미래 사업행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으로 고쳐야 한다. 기업이 향후 사업방식을 바꾸는 등의 행위로 지출을 피할 수 있다면 그 지출에 대한 현재 의무가 없으므로, 단순히 미래 사업운영에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③ O: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금 등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자원 유출이 확실할 필요는 없지만**, 유출될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O: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급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것과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것은 다르다. 정확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문 3.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별 취득한 특허권
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ㄷ.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
ㄹ.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개별 취득한 특허권은 **법적 권리로 식별**되고 취득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연구단계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입증하기 어려워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자산으로 인식하려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ㄱ. O: 특허권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법적 권리에서 발생하는 식별가능한 자산이다. 개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대가에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원가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취득원가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ㄴ. X: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기업의 평판이나 시너지 등에서 생기는 가치로, 기업과 별도로 식별되는 자원이 아니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내부 창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를 창출하기 위한 지출은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ㄷ. X: 연구단계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는 활동이 장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으로 이어질지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원가로 쌓아 두지 않고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ㄹ. X: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와 고객 목록에 대한 지출은 **사업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 든 원가와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브랜드나 고객 목록에 경제적 가치가 있더라도 내부 창출분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관련 지출을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ㄱ만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선택지는 ①이다.

NoteBase

문 4. 다음의 기말수정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중에 구입한 소모품 ₩800,000을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하였으며, 기말 현재 남아 있는 소모품은 ₩200,000이다.
(단, 소모품의 기초 잔액은 없다)
◯ 당기에 발생한 미수이자 수익 ₩800,000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① 자산총액이 ₩1,000,000 증가한다.
② 부채총액은 변동이 없다.
③ 수익총액은 ₩800,000 증가한다.
④ 당기순이익이 ₩800,000 증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말에 남은 소모품 200,000원은 이미 처리한 소모품비에서 빼야 하므로 **비용이 200,000원 감소**한다. 여기에 미수이자 수익 800,000원의 증가를 합하면 당기순이익은 800,000원이 아니라 **1,000,000원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기말수정의 영향은 수정 전 금액과 비교한다. 구입한 소모품 800,000원은 이미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기말에 남은 200,000원은 소모품 자산으로 인식하고 소모품비에서 차감한다. 아직 기록하지 않은 미수이자 800,000원은 받을 권리인 미수수익(자산)과 당기에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① O: 소모품 자산이 200,000원, 미수수익이 800,000원 증가한다. 따라서 자산총액은 200,000 + 800,000 = 1,000,000원 증가한다.

② O: 소모품 수정은 자산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며, 미수이자 수정은 자산과 수익을 늘린다. 두 수정 모두 **부채계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채총액은 변동이 없다.

③ O: 미수이자 수익을 인식하면 이자수익이 800,000원 증가한다. 남은 소모품을 반영하는 수정은 **비용의 감소이며 수익의 증가가 아니므로**, 수익총액의 증가액은 800,000원이다.

④ X: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므로, 수익이 늘어날 때뿐 아니라 비용이 줄어들 때도 증가한다. 이자수익 증가 800,000원과 소모품비 감소 200,000원의 효과를 합하면 당기순이익은 800,000 + 200,000 = **1,000,000원 증가**한다. 선지의 '800,000원 증가'를 '1,000,000원 증가'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5. ㈜한국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한국은 기중에 ₩2,000의 주식배당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당기순이익이 ₩5,000인 경우, 당기의 기타포괄손익은?

구분	기초잔액	기말잔액
자산	₩ 30,000	₩ 40,000
부채	₩ 15,000	₩ 20,000

① ₩0

② ₩2,000

③ ₩3,000

④ ₩5,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자본 내 거래이므로 **자본총계가 변하지 않는다**. 자본 증가액 5,000원이 당기순이익과 같으므로 기타포괄손익은 0원이다.

계산 과정

1. 기초·기말 자본 계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표의 기초잔액을 이용하면 기초자본은 30,000 − 15,000 = 15,000원이고, 기말잔액을 이용하면 기말자본은 40,000 − 20,000 = 2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 자본 증가액은 20,000 − 15,000 = 5,000원이다.

2. 주식배당의 영향: 2,000원의 주식배당을 실시하면 이익잉여금이 2,000원 감소하고 자본금이 같은 금액만큼 증가한다. 이는 **자본 내부의 항목 간 대체**이므로 자산이 유출되거나 자본총계가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 증가액에 주식배당 2,000원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3. 기타포괄손익 계산: 주식배당으로 인한 자본총계 변동이 없으므로, 자료상 자본 증가액 5,000원이 당기 총포괄손익이다.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합계**이므로, 기타포괄손익은 총포괄손익에서 당기순이익을 빼서 구한다. 기타포괄손익은 5,000 − 5,000 = 0원이며, 이는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게임접근권에 대한 수익은? (단, 수익은 월할 계산한다)

○ (주)한국은 게임기기를 ₩95,000에 판매하고 게임접근권 (1년 접근조건)을 ₩5,000에 판매하고 있다.
○ 20×1년 10월 1일에 (주)한국은 100명의 고객에게 2% 할인된 가격으로 게임기기와 게임접근권을 묶음 판매하였다.
○ 게임기기 판매와 게임접근권 판매는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하였으며, 게임접근권 판매의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

① ₩100,000
② ₩122,500
③ ₩367,500
④ ₩49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게임접근권에 배분된 490,000원은 1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20×1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인 122,500원을 인식한다.

계산 과정

1. 묶음 판매금액: 고객 1명당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는 95,000 + 5,000 = 100,000원이다. 여기에 2% 할인을 적용하므로 고객 1명당 거래가격은 100,000 × 98% = 98,000원이다.

2. 게임접근권 배분액: 게임기기와 게임접근권은 별개의 수행의무이므로 거래가격을 **개별 판매가격의 상대적 비율**로 배분한다. 게임접근권의 배분 비율은 $\frac{5,000}{95,000+5,000} = 5\%$이다. 따라서 100명의 고객에게 판매한 게임접근권의 배분액은 98,000 × 5% × 100 = 490,000원이다. 이는 1년간의 접근권 제공 전체에 대응하는 금액이다.

3. 당기 수익: 게임접근권의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므로, 월할 계산 조건에 따라 **전체 12개월 중 당기에 제공한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0×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익은 $490,000 \times \frac{3}{12} = 122,500$원이다.

20×1년도 게임접근권 수익은 122,5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간접법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 계산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차감하는 항목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감가상각비 ㄴ. 재고자산 증가액
ㄷ. 매출채권의 감소액 ㄹ. 매입채무의 감소액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재고자산 증가액은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은 재고 취득분을, 매입채무 감소액은 이미 인식한 채무의 지급분을 현금흐름에 반영하기 위해 **차감**한다. 두 항목 모두 이익에 비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줄이는 조정이다.

보기별 해설

간접법은 발생주의로 계산한 이익을 현금흐름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이 문제에서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출발하여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과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한다.

ㄱ. 감가상각비 — 가산: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한 금액이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줄였지만 **당기에 현금이 유출된 비용은 아니므로**, 현금흐름으로 바꿀 때 다시 더한다.

ㄴ. 재고자산 증가액 — 차감: 재고 취득액 중 판매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아 이익을 줄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흐름을 계산할 때는 **비용에 반영되지 않은 재고 증가분**을 차감한다. 재고를 외상으로 취득한 효과는 매입채무 증감 조정에서 별도로 반영한다.

ㄷ. 매출채권의 감소액 — 가산: 매출채권이 회수되면 현금은 들어오지만, 수익은 외상매출 당시 이미 인식했으므로 회수 시점의 이익은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 회수분**인 매출채권 감소액을 더한다.

ㄹ. 매입채무의 감소액 — 차감: 매입채무를 갚으면 현금이 유출되지만, 채무의 지급 자체는 당기의 새로운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이익 감소 없이 지급된 현금**을 반영하기 위해 매입채무 감소액을 차감한다.

차감하는 항목은 ㄴ의 재고자산 증가액과 ㄹ의 매입채무 감소액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은 20×1년 초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한국은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4년, 잔존가치는 ₩50,000으로 추정하였다. (주)한국이 20×3년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10,000인 경우, 동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취득 이후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은 없다)

① ₩100,000

② ₩200,000

③ ₩300,000

④ ₩40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20×3년은 취득 후 3차 연도이므로 연수합계법의 상각률은 $\frac{2}{10}$이다. 이 상각률로 역산한 **감가상각대상금액 50,000원**에 잔존가치 50,000원을 더하면 취득원가는 10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20×3년의 상각률: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매년 초의 잔여내용연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내용연수가 4년이므로 상각률의 분모는 4 + 3 + 2 + 1 = 10이다. 20×1년 초에 취득했으므로 20×3년은 3차 연도이며, **3차 연도 초의 잔여내용연수는 2년**이다. 따라서 이 해의 상각률은 $\frac{2}{10}$이다.

2. 감가상각대상금액: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다. 손상이 없으므로 이 금액에 해당 연도의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20×3년 감가상각비가 10,000원이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0{,}000 \div \frac{2}{10} = 50{,}000$원이다. 이는 내용연수 4년 동안 배분할 총 감가상각액이다.

3. 취득원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잔존가치 50,000원을 더한다. 취득원가는 50,000 + 50,000 = 100,0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이거나 생산 중인 자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②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③ 외부에서 매입하여 재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토지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라 재고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외부에서 매입했더라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직접 생산했는지가 아니라 판매를 위한 보유 목적이 판단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고자산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 중인 자산**이 포함된다. 완성되어 판매를 기다리는 제품뿐 아니라, 판매할 제품을 만들고 있는 재공품도 재고자산이다.

② O: 재고자산은 판매 대상 자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생산이나 용역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와 소모품도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제품을 만들기 위해 보관 중인 원재료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어도 재고자산이다.

③ X: 외부에서 매입하여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직접 생산한 제품뿐 아니라, 소매업자가 매입하여 판매를 기다리는 상품도 판매 목적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를 '해당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토지는 **기업의 보유 목적과 영업활동**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는 재고자산이다. 반면 기업이 자체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유형자산이므로, 토지라는 자산의 종류만으로 재고자산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NoteBase

문 10. 사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할 때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유효이자율은 0보다 크다)

① 자본의 증가, 부채의 증가

② 자본의 증가, 부채의 감소

③ 자본의 감소, 부채의 증가

④ 자본의 감소, 부채의 감소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면 부채에서 차감하던 금액이 줄어 **부채의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상각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손익을 줄여 **자본이 감소**한다.

핵심 풀이

유효이자율법에서는 기초 사채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한다. 할인발행 사채는 이자비용이 표시이자보다 크며, 그 차액을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으로 처리한다.

부채의 변화: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자산이 아니라 **사채의 액면금액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다. 사채 장부금액은 '액면금액 – 미상각 사채할인발행차금'이므로, 상각으로 미상각 잔액이 줄면 부채의 장부금액은 증가한다. 상각을 부채 원금의 상환으로 보아 부채가 감소한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자본의 변화: 상각액은 차변에 이자비용, 대변에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기록한다. 이는 할인발행으로 생긴 차액을 사채의 존속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자비용의 인식은 당기손익을 감소**시켜 자본을 줄인다. 따라서 상각에 따른 영향은 '자본의 감소, 부채의 증가'이다.

NoteBase

문 11.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잔액은 ₩10,000이다. (주)한국은 20×1년 중 ₩20,000의 매출채권을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장부에서 제거하였다. 20×1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700,000이며, 기대신용손실은 ₩40,000으로 추정하였다. (주)한국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① ₩10,000

② ₩20,000

③ ₩40,000

④ ₩5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회수불능 채권을 제거하면 손실충당금은 차변에 10,000원이 남는다. 이를 기말에 필요한 대변 40,000원으로 맞추려면 **손상차손 50,000원**을 인식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회수불능 매출채권 제거: 손실충당금은 매출채권의 회수 예상 손실을 반영하는 차감 계정으로, 보통 대변 잔액을 갖는다. 회수불능 채권 20,000원을 장부에서 제거할 때는 **손실충당금을 차변에, 매출채권을 대변에** 각각 20,000원 기록한다. 따라서 기초 대변 잔액 10,000원을 초과하여 충당금이 사용되므로, 결산 조정 전 손실충당금은 차변 잔액 10,000원이 된다.

2. 기말 손실충당금 필요액: 기말 매출채권 700,000원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추정액이 40,000원이므로, 손실충당금의 기말 잔액은 대변 40,000원이어야 한다. 이 금액은 **기말에 보유해야 할 충당금 잔액**이며, 당기에 새로 인식할 손상차손과는 구별한다. 기대신용손실 금액이 직접 주어졌으므로 매출채권 잔액에 별도의 손실률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3. 당기 손상차손: 조정 전 차변 잔액 10,000원을 없애고 대변 잔액 40,000원을 만들려면 손실충당금을 대변에 10,000 + 40,000 = 50,000원 기록해야 한다. 이때 상대 계정인 손상차손을 차변에 50,000원 기록한다. 따라서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50,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① 사무실을 1개월 후에 1년간 임차하기로 임대인과 계약 체결

② 업무에 사용하던 비품의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③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의 사용

④ 공장건물에 대한 수선 후 청구서 수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사무실을 나중에 임차하기로 **계약만 체결한 단계**에서는 아직 자산·부채·자본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계약 체결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회계상 거래는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서 자산·부채·자본에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이다.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있어야만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O/X는 각 사례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다.

① X: 사무실을 1개월 후부터 1년간 임차하기로 약속했을 뿐, 아직 임차가 시작되거나 임차료를 지급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계약만 체결한 단계**에서는 자산·부채·자본의 변동이 없어 회계상 거래로 기록하지 않는다. 이후 임차가 시작되거나 임차료를 미리 지급하는 등 회계요소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기록한다.

② O: 자연재해로 업무용 비품이 파손되면 그 비품의 가치가 감소한다. 이러한 자산의 감소와 손실은 회계에 반영해야 하므로, **상대방과의 교환이 없는 사건**도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있다.

③ O: 기계장치를 사용하면서 그 원가를 사용기간에 배분하는 것이 감가상각이다. 제품생산에 사용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포함**되며, 감가상각누계액이 증가하여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이 감소하므로 회계상 거래이다.

④ O: 공장건물의 수선이 끝나 수선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생겼다. 따라서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수선에 따른 원가와 미지급금 등 부채를 회계에 반영해야 하므로 회계상 거래이다.

NoteBase

문 13.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그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해당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은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이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는 변동되지 않는다.

④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고 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은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도 변동**한다. 사채나 주식을 발행해 현금을 조달하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현금과 부채 또는 자본이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경제적자원은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을, 청구권은 그 자원에 대한 채권자와 소유주의 권리를 뜻한다. 어떤 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부담하는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채무를 지급할 능력과 추가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O: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활용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창출했는지** 보여 준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경영진이 자원을 얼마나 잘 운용했는지와 앞으로도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평가할 수 있다.

③ X: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은 재무성과뿐 아니라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으로도 변동**한다. 예를 들어 사채를 발행해 현금을 받으면 현금과 부채가 증가하고, 주식을 발행해 출자금을 받으면 현금과 자본이 증가한다. 이때 유입된 자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라 채권자나 주주에게서 조달한 자금이다. 따라서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는 변동되지 않는다'를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도 변동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현금흐름 정보는 기업이 **현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보여 준다. 영업을 통한 현금 유입과 지출, 차입과 상환 등을 살펴보면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자금의 조달과 사용 내역은 경영진이 맡은 경제적자원을 책임 있게 관리했는지, 즉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NoteBase

문 14. 다음 자료를 이용한 수정분개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계정과목	수정전시산표 잔액	수정후시산표 잔액
선급비용	₩ 2,000	₩ 1,000
미지급비용	₩ 2,000	₩ 3,000
선수수익	₩ 1,500	₩ 2,500
미수수익	₩ 3,000	₩ 4,000

① ₩ 1,000 감소

② ₩ 2,000 감소

③ ₩ 3,000 감소

④ ₩ 4,000 감소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수정분개로 비용은 2,000원 증가하고, 수익은 선수수익과 미수수익의 조정 효과가 상쇄되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2,000원 감소**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다. 표의 수정 전후 잔액 차이로 각 수정분개의 수익·비용 변동을 구한 뒤, '수익 증가액 − 비용 증가액'으로 순이익의 변동을 계산한다.

선급비용: 미리 지급한 금액 중 아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자산이다. 잔액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었으므로, 그 차이 1,000원은 **당기에 사용되어 비용으로 전환된 금액**이다. 차변에 비용 1,000원, 대변에 선급비용 1,000원을 기록하므로 순이익은 1,000원 감소한다.

미지급비용: 당기에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에 대한 부채이다. 잔액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늘었으므로, **발생한 비용 1,000원을 추가로 인식**한다. 차변에 비용 1,000원, 대변에 미지급비용 1,000원을 기록하므로 순이익은 1,000원 감소한다.

선수수익: 대가를 미리 받았으나 아직 수익으로 인식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으로, 부채이다. 잔액이 1,500원에서 2,500원으로 늘었으므로, 이미 기록한 수익 중 **당기 수익이 아닌 1,000원을 부채로 돌린다**. 차변에 수익 1,000원, 대변에 선수수익 1,000원을 기록하므로 순이익은 1,000원 감소한다.

미수수익: 당기에 수익은 발생했지만 아직 대가를 받지 못한 금액으로, 자산이다. 잔액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늘었으므로, **아직 받지 못한 당기 수익 1,000원을 추가로 인식**한다. 차변에 미수수익 1,000원, 대변에 수익 1,000원을 기록하므로 순이익은 1,000원 증가한다.

합계: 비용 증가액은 1,000 + 1,000 = 2,000원이고, 수익 변동액은 −1,000 + 1,000 = 0원이다. 따라서 순이익 변동액은 0 − 2,000 = −2,000원으로, ②의 '2,000원 감소'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 후 집합손익 계정의 잔액은 ₩100,000이다. 수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집합손익 계정의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① (차): 수익 ₩100,000, (대): 집합손익 ₩100,000

② (차): 이익잉여금 ₩100,000, (대): 집합손익 ₩100,000

③ (차): 집합손익 ₩100,000, (대): 비용 ₩100,000

④ (차): 집합손익 ₩100,000, (대): 이익잉여금 ₩10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집합손익에 **당기순이익 100,000원의 대변잔액**이 남는다. 이를 마감하려면 집합손익을 차변에 기록하여 잔액을 없애고, 이익잉여금을 대변에 기록하여 이익을 이전한다.

핵심 풀이

집합손익의 잔액: 수익을 마감하면 수익 금액이 집합손익의 대변으로, 비용을 마감하면 비용 금액이 집합손익의 차변으로 옮겨진다. 따라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차액인 당기순이익이 **대변잔액**으로 남는다. 문제의 100,000원은 수익이나 비용의 총액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다.

집합손익의 마감분개: 마감은 계정 잔액을 0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대변잔액 100,000원을 없애려면 집합손익의 차변에 같은 금액을 기록한다. 동시에 당기순이익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므로 이익잉여금을 대변에 기록한다. 분개는 '(차) 집합손익 100,000원 / (대) 이익잉여금 100,000원'이다.

다른 분개와의 구분: 수익이나 비용을 상대계정으로 쓰는 분개는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여 집합손익으로 옮기는 단계**의 분개이다. 이 문제에서는 그 단계가 이미 끝났다. 반대로 '(차) 이익잉여금 / (대) 집합손익'은 비용이 수익보다 커서 집합손익에 차변잔액인 당기순손실이 남았을 때의 마감분개이다.

NoteBase

문 16. 다음은 (주)한국의 건설계약 관련 자료이다. (주)한국이 20×1년도에 인식할 공사수익은?

◯ 20×1년 1월 1일 건설공사 시작
◯ 건설계약 기간: 3년
◯ 공사계약금액: ₩100억
◯ 총예상원가: ₩80억
◯ 20×1년 당기 발생원가: ₩40억
◯ 진행률(투입법)에 따라 수익과 비용 인식

① ₩10억
② ₩20억
③ ₩50억
④ ₩60억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투입법에서는 **총예상원가 대비 누적 발생원가의 비율**로 진행률을 구한다. 첫해 진행률이 50%이므로 계약금액 100억 원의 50%인 50억 원을 공사수익으로 인식한다.

계산 과정

1. 진행률 계산: 투입법은 공사에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공사의 완성 정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누적 발생원가를 총예상원가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20×1년 1월 1일에 공사를 시작했으므로 당기 발생원가 40억 원이 곧 누적 발생원가이다.
진행률은 40억 원80억 원 × 100 = 50\%이다. 이는 예상되는 전체 원가의 절반이 투입되었다는 뜻이며,
계약기간 3년을 기준으로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는다.

2. 공사수익 계산: 누적 공사수익은 공사계약금액에 진행률을 곱하여 구한다.
누적 공사수익 = 100억 원 × 50% = 50억 원.
20×1년은 공사를 시작한 첫해로 이전 연도에 인식한 공사수익이 없으므로, 누적 공사수익 전액이 당기 공사수익이다. 따라서 20×1년도에 인식할 공사수익은 50억 원으로,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단, 회전율 계산 시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 20×1년 1월 1일 재고자산 잔액은 ₩ 0
◯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 60일(1년을 360일로 가정)
◯ 매출원가: ₩ 3,000,000

① ₩ 500,000
② ₩ 900,000
③ ₩ 1,000,000
④ ₩ 1,2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평균처리기간 60일은 연간 6회 회전한다는 뜻이므로 평균재고자산은 500,000원이다. 기초재고가 0원이므로 **기말재고는 평균재고의 2배**인 1,00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재고자산회전율: 평균처리기간은 재고자산이 판매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이다. 1년을 360일로 가정하므로 회전율은 $\frac{360}{60} = 6$회이다. 이는 20×1년에 평균재고자산의 6배에 해당하는 원가가 매출원가로 처리되었다는 뜻이다.

2. 평균재고자산: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재고자산과 같은 원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므로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원가**를 사용한다. 따라서 평균재고자산은 $\frac{3,000,000}{6} = 500,000$원이다.

3. 기말재고자산: 문제에서 평균재고자산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기초재고자산이 0원이므로 0+기말재고2=500,000이다. 즉, 평균재고 500,000원은 기말재고의 절반이므로 기말재고자산은 500,000 × 2 = 1,000,000원이며,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은행계정조정표 작성을 위한 은행 측 조정사항은?

① (주)한국이 20×1년 12월 30일에 발행한 수표 ₩200,000이 대한은행에서는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

② (주)한국이 20×1년 12월 31일에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수표 ₩300,000을 장부상 입금처리 한 후 대한은행에 입금하였으나 부도수표로 판명되어 은행에서는 입금처리 하지 않았다.

③ 대한은행이 20×1년 12월 28일에 추심한 받을어음 금액 ₩100,000이 있었으나 (주)한국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④ 대한은행이 20×1년의 당좌거래수수료 ₩50,000을 (주)한국의 계좌에서 출금처리 하였으나 (주)한국은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발행했지만 은행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수표는 **미인출수표**이다. 회사는 이미 예금 감소를 기록했으므로, 은행계정조정표에서 **은행 측 잔액에서 200,000원을 차감**한다.

선지별 해설

은행계정조정표는 회사 장부의 예금 잔액과 은행이 제시한 잔액의 차이 원인을 찾아 일치시키는 표이다. 은행 측 조정사항은 은행 잔액을 기준으로 가감하고, 회사 측 조정사항은 회사 장부 잔액을 기준으로 가감한다.

① O: 20×1년 12월 30일에 발행한 수표 200,000원은 은행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인출수표이다. 회사는 수표 발행 시 당좌예금 감소를 기록했지만 은행은 아직 출금처리하지 않아 은행 잔액이 그만큼 더 크다. 따라서 **은행 측 잔액에서 200,000원을 차감**하며, 회사 장부에는 추가로 기록하지 않는다.

② X: 회사는 수취한 수표 300,000원을 입금으로 기록했지만, 은행은 부도수표여서 입금처리하지 않았다. 실제로 예금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회사 장부만 증가했으므로 **회사 측 장부 잔액에서 300,000원을 차감**한다. 은행 측 잔액을 늘리는 미기입예금과 구별해야 한다.

③ X: 은행이 20×1년 12월 28일에 받을어음 100,000원을 추심했으므로 은행 잔액에는 이미 입금이 반영되어 있다. 회사는 통보받지 못해 추심액을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측 장부 잔액에 100,000원을 가산**하고 받을어음을 감소시킨다. 은행 측 조정사항은 아니다.

④ X: 은행은 당좌거래수수료 50,000원을 이미 출금했지만 회사는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 장부의 예금 잔액이 실제보다 50,000원 크게 표시되어 있다.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회사 측 장부 잔액에서 50,000원을 차감**한다.

NoteBase

문 19.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경우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② 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손익은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③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④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는 영업손익 산출의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며,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상계는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서로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상계하면 각 항목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각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X: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산출한다. 판매비와관리비에는 물류원가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손익을 표시할 수 있다. 선지는 이 예외적인 표시 방식을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③ O: 매입채무나 종업원 급여 등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은 정상영업주기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처럼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되는 영업 관련 부채**는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넘겨 결제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부채 여부를 판단할 때 정상영업주기라는 기준과 12개월이라는 기준을 구별해야 한다.

④ O: 발생기준 회계는 현금의 수취·지급 시점이 아니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그 영향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했으나 급여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급여비용과 미지급비용을 인식한다.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한 재무제표**를 이러한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현금흐름 정보는 실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 준다.

NoteBase

문 20. 상품매매기업의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고자산에 대한 감모(평가)손실, 매입할인은 없다)

① 계속기록법을 적용할 경우, 재고자산 관련 기말 수정분개는 필요 없다.

②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할 경우, 수정전시산표상 재고자산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기초 재고자산 금액과 동일하다.

③ 계속기록법을 적용할 경우, 기중에도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④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할 경우, 매입계정을 재고자산 취득 시 차변에 기록하고 재고자산 판매 시 대변에 기록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상품 취득원가를 **매입계정의 차변**에 기록하지만, **판매할 때 매입계정을 대변에 기록하지 않는다**. 판매 시에는 매출을 기록하고, 판매한 상품의 원가는 기말에 재고 실사 결과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로 확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계속기록법은 상품을 매입할 때 재고자산을 늘리고, 판매할 때 판매한 상품의 원가만큼 재고자산을 줄이면서 매출원가를 기록한다. 따라서 재고자산과 매출원가가 거래 때마다 갱신된다. 이 문제처럼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없는 조건**에서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수정분개가 필요 없다.

② O: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중 매입을 매입계정에 기록하고 판매 시 재고자산계정을 줄이지 않는다. 재고자산계정은 기말 수정 전까지 **기초 잔액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수정전시산표의 재고자산 금액은 기초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금액과 같다. 기말에는 실사로 파악한 재고자산 금액을 반영한다.

③ O: 계속기록법은 상품의 입고와 출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량과 취득원가를 장부에 기록한다. 따라서 기말 실사 전인 기중에도 **장부상 재고 수량과 단가**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단가는 판매가격이 아니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④ X: 실지재고조사법에서 매입계정은 기중 상품 취득원가를 모아 두는 계정이다. 상품 취득 시 매입계정 차변에 기록하는 부분은 맞지만, **판매 시 매입계정을 대변에 기록한다**는 부분은 잘못이다. 판매할 때는 현금이나 매출채권을 차변에, 매출을 대변에 기록하며 매입계정은 변동시키지 않는다. 판매한 상품의 원가는 기말에 '기초재고액 + 당기순매입액 – 기말재고액'으로 계산하여 매출원가로 반영한다.

NoteBase